

연속된 사건에 대한 한국어와 영어의 표현 양상

정수진* · 이주익**

|| 차례 ||

- I. 머리말
- II. 이론적 바탕
- III. 연속된 사건에 대한 한국어와 영어의 표현 양상 비교
- IV. 맺음말

【국문초록】

본 논문은 개념화자의 해석 방식이 언어 표현의 구조와 의미에 반영된다는 인지언어학의 관점에서 한국어와 영어의 복문을 대상으로 하여 각 언어의 개념화자가 연속된 두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을 비교하고 그 차이를 밝힌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경-배경 할당 방식’에 있어서는 한국어와 영어 모두 Talmy가 제시한 보편적 원리에 따르고, 한국어 및 영어의 개념화자가 시간적·논리적으로 연속된 두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은 ‘선행/원인-배경’과 ‘후행/결과-전경’으로 동일하다. 둘째, 개념화자의 ‘시선 이동의 방향’ 측면에서는 한국어 및 영어의 개념화자가 연속된 두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에 차이가 나타난다. 한국어의 개념화자들은 객관적 상황에 존재하는 사건 그 자체를 중심으로 발생 순서에 따라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영어의 개념화자들은 객관적 상황에 존재하는 사건을 자신의 주관에 따라 재구성하여 사건의 발생 순서와 다르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시 말해, 한국어 복문의 어순은 ‘배경종속절+전경주절’로 고정되지만, 영어 복문의 어순은 ‘전경주절+배경종속절’과 ‘배경종속절+전경주절’로

* 대구한의대학교 한국어문학과 조교수

** 경북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강사

연속된 사건의 발화 순서에 제약이 없다. 이는 한국어와 영어의 개념화자의 해석 방식, 구체적으로 시간적·논리적으로 연속된 두 사건에 대한 개념화자의 시선 이동 방향의 차이가 언어 표현에 그대로 반영된 결과이다.

주제어 : 연속된 사건, 관점, 전경과 배경, 시선의 이동 방향, 직접적 시선, 회고적 시선

I. 머리말

인지언어학은 ‘해석(construal)’에 근거하여 언어의 이해와 사용에 존재하는 동기(motivation)를 설명함으로써 언어 현상에 대한 높은 설명력을 제공한다. ‘해석’은 ‘특정 상황에 대한 개념화자의 여러 가지 인식 방법’을 가리키는 포괄적인 용어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왜 한 상황이 여러 다른 표현으로 구조화되어 발화/기술¹⁾되는지, 왜 그 표현들의 의미가 다른지를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1) ㄱ. 플로이드가 망치로 유리를 깼다.

(Floyd broke the glass with the hammer.)

ㄴ. 망치가 유리를 깼다.

(The hammer broke the glass.)

ㄷ. 유리가 깨졌다.

(The glass broke.)

(Langacker 1990: 216)

1) 일반적으로 구어(spoken)와 문어(written)의 구별을 위해 ‘발화(speaking)’와 ‘기술(writing)’을 사용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논의의 편의상 ‘기술’의 개념을 포함해서 ‘발화’를 사용하고자 한다.

예문 (1)을 보면, ‘누가 도구를 사용하여 무엇을 깎’ 상황이 다른 구조의 문장으로 발화되고 있다. (1ㄱ)은 동작주와 도구, 피동작주가 모두 상세하게 발화되고 있는 데 반해, (1ㄴ)은 도구와 피동작주가, (1ㄷ)은 피동작주만이 선택적으로 발화되고 있다. 이는 개념화자가 이 상황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인 ‘플로이드’, ‘망치’, ‘유리’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즉 어느 관계를 현저한 요소로 파악하면서 그 상황을 인식하느냐와 관련된다.

이처럼 객관적 사태에 대한 언어적 실현은 그 사태에 대한 개념화자의 해석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언어 표현의 구조와 의미는 이에 반영된 개념화자의 해석 양상²⁾을 살펴봐야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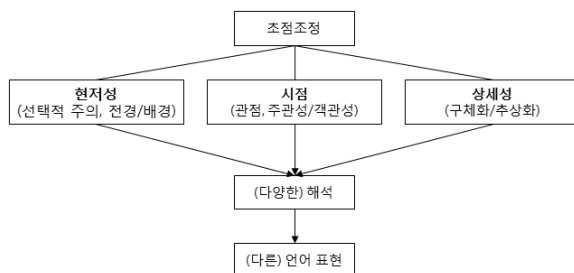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의 예 (2)와 (3)은 매우 흥미롭다.

(2) ㄱ. Before I dried the dishes, I washed them.

ㄴ. I washed the dishes before I dried them.

(3) ㄱ. 나는 접시를 말리기 전에 그것을 닦았다.

2) Langacker(1987: 116-137)는 같은 상황에 대한 해석이 ‘초점조정(focal adjustment)’에 의해 다양해진다고 보았다. ‘초점조정’은 주어진 상황에서 특정한 양상에 주의를 돌리는 방식을 말하는데, 개념화자가 주어진 상황에서 무엇을 현저한 것으로 파악하느냐, 어떤 관점(perspective)을 취하느냐, 주어진 상황을 어느 정도 상세하게 파악하느냐 등과 관련된다. 즉 상황에 대한 개념화자의 ‘초점조정’에 의해 그 상황은 특징하게 해석되며, 이러한 해석이 특정 언어 표현으로 조직된다.



ㄴ. *나는 접시를 닦았고 그것을 말리기 전이다.

예문 (2ㄱ)과 (2ㄴ), (3ㄱ)과 (3ㄴ)은 모두 복문으로서 동일한 문장 구조를 띠고 있다. 그러나 (2ㄱ)과 (2ㄴ), (3ㄱ)과 (3ㄴ)은 주절과 종속절의 제시 순서에 차이가 있고 이에 따라 이들 문장의 전달 의미에 차이가 나타난다. (2ㄱ)과 (3ㄱ)은 화자가 종속절을 먼저 언급함에 따라 청자는 배경이 되는 사건 ‘그릇을 말리다’를 통해 중심 사건 ‘그릇을 닦다’를 이해하게 하며, (2ㄴ)과 (3ㄴ)은 화자가 주절을 먼저 언급함으로써 화자의 주의 초점이 상대적으로 중심 사건에 놓여 있음을 드러낸다. 즉 (2ㄱ)과 (3ㄱ)은 배경 사건의 틀에서 중심 사건을 발화하고 있고, (2ㄴ)과 (3ㄴ)은 중심 사건을 상대적으로 부각시켜 사건을 발화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개념화자가 취하는 ‘관점에 따른 해석(perspectival construal)’에 기인한다.

그런데 영어와 달리 한국어에서는 연속된 두 사건이 발화될 때 (3ㄱ)처럼 배경 사건의 틀에서 중심 사건을 발화하는 방식만 허용된다. 이는 한국어와 영어의 화자가 연속된 두 사건을 파악할 때 취하는 다양한 관점 해석 중 ‘시선 방향(direction of viewing)’의 양식에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현상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연속된 사건을 복문³⁾으로 구성할 때 작용하는 개념화자의 해석 방식에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한국어와 영어의 화자 사이에 이러한 해석 방식이 차이를 보이는지,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나는지 탐구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2장에서는 연속된 두 사건의 관계를 해석하는 방식으로 ‘전경(figure)과 배경(ground)의 할당 방식’과 ‘개념화자의 관점 양식(perspective mode)’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토대로 3장에서는 연속된 사건에 대한 한국어와 영어 화자의 해석

3) 본 논문에서 사용된 ‘복문’은 한국어의 ‘복합문(접속문과 내포문)’과 영어의 ‘복문(complex sentence)’을 아우르는 용어이다.

방식을 비교해 볼 것이다.

II. 이론적 바탕

연속된 복수(multi)의 사건과 관련하여 Talmy(2000)는 전경(F)과 배경(G)이라는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4) **The temporally specific conceptualizations of Figure and Ground in language:** The figure is an event whose location in time is conceived as a variable the particular value of which is the relevant issue. The Ground is a reference event, one that has a stationary setting relative to a reference frame (generally, the one-dimensional timeline) with respect to which the Figure's temporal location is characterized.

(Talmy 2000: 320)

(4)에서 보듯이 Talmy는 전경은 관련된 사태에서 특정한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서, 시간의 위치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사건으로 보았다. 이에 반해 배경은 전경을 이해하는 데 기준틀(reference frame)을 제공하는 참조 사건으로서, 이를 통해 전경의 시간 위치가 규정된다고 보았다. 다음의 예를 보자.

(5) He exploded(F) after he touched the button(G).

(Talmy 2000: 321)

(5)에서 개념화되는 연속된 두 사건-폭파하는 사건과 버튼을 누르는 사

건-을 인식할 때 ‘폭파하는’ 사건을 전경으로, ‘버튼을 누르는’ 사건을 배경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버튼을 누르는’ 행위는 ‘폭파하는’ 행위의 기준점(reference point)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폭파하는’ 행위가 상대적으로 부각되고, 이의 시간적 위치도 정해진다.

그렇다면 연속된 두 사건에 대하여 어떻게 전경-배경⁴⁾을 할당하는 것일까? Talmy(2000)는 이와 관련하여 보편적이고 구체적인 원리들을 제시하였다.

(6) Possible universal principles in Figure/Ground assignment to the events in an interevent relation

- | | |
|-----------------------------------|---|
| ㉠. Sequence principle | 예) She departed after he arrived. |
| ㉡. Cause-result principle | 예) We stayed home because he had arrived. |
| ㉢. (temporal) Inclusion principle | 예) He had two affairs while he was married. |
| ㉣. Contingency principle | 예) He dreamt while he slept. |
| ㉤. Substitution principle | 예) He's playing instead of working. |

(Talmy 2000: 325-329 참조)

4) Talmy(2000)와 Croft(2005)는 다음과 같이 전경 및 배경의 개념을 규정하고 각각의 속성을 설명하였다.

	Figure(F)	Ground(G)
Definitional characteristics	Has unknown spatial (or temporal) properties to be determined	Acts as a reference entity, having known properties that can characterize the Figure's unknowns
Associative characteristics	• more salient • more recently on the scene • more recently in awareness • of greater concern/relevance • less immediately perceivable • more dependent	• more backgrounded (scene-setting) • earlier on scene/in memory • more familiar/expected • of lesser concern/relevance • more immediately perceivable • more independent

(Adapted from Talmy 2000: 315-316 and Croft 2005: 56)

먼저 (6ㄱ)의 ‘순차 원리(sequence principle)’에 따라 연속적인 두 개의 사건 중에서 일반적으로 먼저 일어난 사건이 기준점, 즉 배경이 되고 뒤에 일어난 사건이 전경이 된다. 다음으로 (6ㄴ)의 ‘인과 원리(cause-result principle)’에 따라 일반적으로 원인이 되는 사건을 배경으로, 결과가 되는 사건을 전경으로 파악한다. 그리고 (6ㄷ)의 ‘포함 원리(temporal inclusion principle)’에 따라 시간적으로 포괄적인 사건이 배경이 되고, 포함되는 사건이 전경이 된다. 즉 배경이 되는 사건은 시간의 범위가 더 크고 상대적으로 다른 사건을 포함할 수 있는 사건으로서 전경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데에 일정한 상황을 제공하게 된다. (6ㄹ)의 ‘의존 원리(contingency principle)’에 따라 어떤 사건의 발생에 필수적이거나 결정적인 사건은 배경이 되고, 이 사건에 의존적이거나 이 사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사건은 전경이 된다. 마지막으로 (6ㅁ)의 ‘대체 원리(substitution principle)’에 따라 예견되었지만 발생하지 않는 사건은 배경으로 파악하고, 예견하지 못했지만 발생한 대체 사건은 전경으로 파악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연속된 사건에 대한 ‘전경-배경’ 할당 원리

원리	배경	전경
순차	먼저 일어난 사건	나중에 일어난 사건
인과	원인이 되는 사건	결과가 되는 사건
포함	시간적으로 포괄적인 사건	시간적으로 포함되는 사건
의존	사건 발생의 필수적인 사건	한 사건에 의존하여 발생하는 사건
대체	예견되었지만 발생하지 않은 사건	예견하지 못했지만 발생한 대체 사건

한편 앞서 살펴본 예문 (5) ‘He exploded(F) after he touched the button(G).’은 전경_{주절}과 배경_{종속절}의 위치를 바꾸어 (5)’처럼 발화할 수

있다.

(5)' After he touched the button(G), he exploded(F).

이 경우, 두 문장이 나타내는 연속된 사건의 시간적 선후 관계에는 차이가 없다. 그러나 연속된 사건의 발화 순서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으며, 화자가 (5)나 (5)'의 문장을 선택적으로 발화한다는 것은 의도하는 바가 다를 수 있다. 이는 곧 화자가 이들 사건을 인식하는 관점 양식(perspective mode)⁵⁾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역설한다. 이렇게 복문에서 전경(F)과 배경(G)의 발화 순서를 바꾸는 것에 대하여 Talmy는 '사건'을 바라보는 화자의 관점 해석의 차이로 보고, 구체적으로 시선 방향⁶⁾의 다양성으로 설명하였다.

‘시선의 방향은 연속되는 사건들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와 관련된 개념이

5) Talmy(2000: 70-71)는 관점의 양식을 요약 방식(synoptic mode)과 연속 방식(sequential mode)으로 구분하였다. 예를 들어, 전자는 복수의 대상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정지된 원거리 관점(stationary distal perspective point)으로 인식하는 것이고, 후자는 부분적(local)으로 집중하면서, 움직이는 근거리 관점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같은 광경을 바라볼 때, 예문 (가)는 요약 방식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예문 (나)는 연속 방식으로 화자가 인식하고 있음을 언어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다.

가. There are some houses in the vall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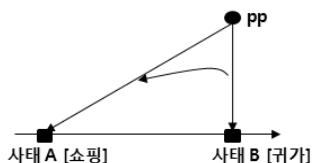
나. There is a house every now and then through the valley.

6) Talmy는 연속 방식(sequential mode)을 물리적 위치뿐만 아니라, 일련의 사건들과 계속되는 한 사건을 인식할 때도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즉, 인간이 사물뿐만 아니라 사건을 바라볼 때도 연속 방식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시간적 순차 관계가 있는 사건들을 인식할 때 주의 초점(focus of attention)의 정도가 달라지는데, 이것을 시선의 방향(direction of viewing)이라는 개념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복수의 사건들을 인식할 때 기준점이 되는 한 사건을 바탕으로 다른 사건을 특정 방향으로 “바라볼(sighting)”수 있다는 개념적 가능성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시선의 방향은 관점의 순차 방식을 시간의 범위에 적용한 개념이다.

므로, 이를 통해 우리는 복문의 구조가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 이유를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Talmy(2000)에 따르면, 일련의 두 사건에서 폐쇄부류(closed-class form)인 접속사를 통해 두 사건 중 어느 사건에 개념화자의 관점(perspective point: pp)이 위치하는지 알 수 있다. 또한 그는 개념화자의 관점과 시선의 이동 방향 간의 관계를 ‘역차적 방식(antisequential mode)’과 ‘순차적 방식(cosequential mode)’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먼저 개념화자의 시선 이동 방향이 ‘역차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보자. 개념화자가 연속된 두 사건을 해석할 때, 개념화자의 관점(pp: ●)이 위치한 사건에 개념화자의 시선이 먼저 놓이면 ‘직접적 시선(direct viewing)’이 형성되고, 나머지 다른 사건으로 이 직접적 시선이 이동되면서 ‘회고적 시선(retrospective viewing)’이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접속사가 없는) 주절에 나타난 사건에 개념화자의 관점이 위치하고, 그 사건에 개념화자의 시선이 먼저 놓이며, 그 다음 (접속사가 이끄는) 종속절의 사건으로 시선이 이동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시선의 이동이 역방향(antisequential perspectival mode)이 된다.

(7) Antisequential perspectival mode: Direct → Retrospective



I went home after I shopped at the st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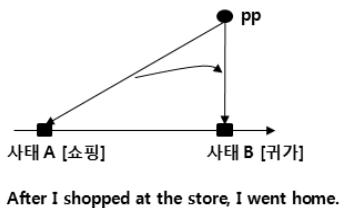
(Adapted from Talmy 2000: 74-75)

예를 들어, (7)은 ‘쇼핑’과 ‘귀가’라는 두 사건을 다루고 있고, 시간 논리

상 쇼핑(사건 A: ■) 후 귀가(사건 B: ■)라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이를 개념화자의 관점 양식에 따라 분석해 보면, 주절 'I went home'(사건 B)에 개념화자의 관점(●)이 기본적으로 위치해 있다. 여기에 개념화자의 시선이 먼저 놓이면서 '직접적 시선(↓)'이 형성되고, 종속절 'after I shopped at the store'(사건 A)로 이 직접적 시선이 서서히 이동하여 '회고적 시선(↙)'이 이루어진다. 이 경우 사건의 발생 순서(사건 A→사건 B)와 시선의 이동 방향(사건 A←사건 B)이 정반대이다. 이런 까닭에 개념화자의 관점 이동은 역방향이 된다.

다음으로 개념화자의 시선 이동 방향이 '순차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보자. 개념화자가 연속된 두 사건을 해석할 때, 개념화자의 관점에서 종속절의 사건으로 개념화자의 '회고적 시선'이 먼저 형성되고, 개념화자의 관점이 위치한 주절의 사건으로 이 회고적 시선이 이동되면서 '직접적 시선'이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개념화자의 관점은 기본적으로 주절에 위치하고 있지만, 시선이 종속절에 먼저 놓이고 그 시선이 주절로 이동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시선의 이동이 순방향(cosequential perspectival mode)이 된다.

(8) Cosequential perspectival mode: Retrospective → Direct



(Adapted from Talmy 2000: 73)

예를 들어, (8)은 두 사건 ‘쇼핑’과 ‘귀가’의 시간적 선후 관계 측면에서 보면 (7)과 그 의미가 동일하지만, 개념화자의 관점 양식에 따라 분석해 보면 차이가 있다. 우선, 개념화자의 관점(●)이 기본적으로 주절 ‘I went home’(사건 B)에 위치한 상태에서, 개념화자의 시선이 주절이 아닌 종속절 ‘after I shopped at the store’(사건 A)에 먼저 놓이면서 ‘회고적 시선(↙)’이 형성되고, 주절 ‘I went home’로 이 회고적 시선이 서서히 이동하여 ‘직접적 시선(↓)’이 이루어진다. 이 경우 사건의 발생 순서(사건 A→사건 B)와 시선의 이동 방향(사건 A→사건 B)이 일치한다. 이런 까닭에 개념화자의 관점 이동은 순방향이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속된 두 사건은 개념화자가 두 사건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전경 사건과 배경 사건으로 파악되고, 이러한 해석 방식은 주절(F)과 종속절(G)의 복문 구조로 표현된다. 또한 개념화자의 관점 양식에 기초한 시선의 방향에 따라 주절(F)과 종속절(G)의 제시 순서는 달라질 수 있다. 즉 두 사건 중 한 사건에 개념화자의 관점이 놓이고, 이를 기준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개념화자의 시선이 이동하는데, 그 시선의 방향에 따라 개념화자는 주절(F)과 종속절(G)을 다른 순서로 발화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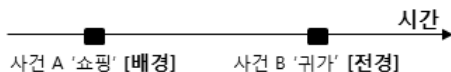
Ⅲ. 연속된 사건에 대한 한국어와 영어의 해석 방식 비교

이제 ‘전경과 배경’, ‘시선의 방향’의 측면에서 연속된 사건이 한국어와 영어에서 언어 표현으로 어떻게 발화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각각의 개념화자가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이 어떠한지 비교해 보도록 하자.

1. 전경과 배경의 할당 방식

앞서 제시한 Talmy의 ‘possible universal principles’에 근거하여, 상호 관련을 맺으며 연속된 두 사건에 대한 한국어와 영어의 ‘전경-배경’ 할당 방식을 비교해 보자⁷⁾.

(9) 순차 원리(sequence principle)



ㄱ. 한국어⁸⁾

㉠ 나는 쇼핑을 한 후에(G) 집에 갔다(F).

㉡ ^나는 집에 가기 전에(G) 쇼핑을 했다(F).

ㄴ. 영어

㉠ I went home(F) after I shopped at the store(G).

㉡ ^I shopped at the store(F) before I went home(G).

시간적으로 인접해 있는 두 사건에 대해 우리는 일반적으로 먼저 일어난 사건을 기준으로 하여 뒤에 일어난 사건을 이해한다. 이러한 보편적 인지 방식인 ‘순차 원리’에 의해 우리는 연속된 두 사건에서 앞서 발생한 사건을 배경(G)으로, 뒤에 발생한 사건을 전경(F)으로 할당하게 된다.

7) 본 논문에서는 Talmy가 제시한 5가지 possible universal principles 중에서 순차 원리(sequence principle)와 인과 원리(cause-result principle)에 집중한다. 이는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이 “사건의 연속성”과 이를 바탕으로 한 ‘인과 관계’를 극명하게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우선 연속된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기 위함이다. 다른 세 원리, 즉 포함 원리(inclusion principle)를 비롯하여, 의존 원리(contingency principle), 대체 원리(substitution principle)에 대한 비교는 후속 연구에서 다룰 예정이다.

8)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약호 ‘^’는 ‘순차 원리’ 및 ‘인과 원리’에 위배됨을 나타낸다.

[표 2] ‘순차 원리’에 따른 전경-배경의 할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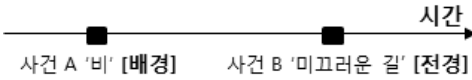
전경-배경의 할당	배경(G)	전경(F)
순차 원리	선행 사건	후행 사건
	쇼핑(사건 A)	귀가(사건 B)
예문 ㉗	선행 사건	후행 사건
	쇼핑(사건 A)	귀가(사건 B)
예문 ㉘	후행 사건	선행 사건
	귀가(사건 B)	쇼핑(사건 A)

위의 예문 (9)에서 보듯이, 시간적으로 연속된 두 사건에 대해 한국어와 영어 모두에서 보편적으로 순차 원리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선행 사건(쇼핑)’이 ‘배경(G)’이 되고 ‘후행 사건(귀가)’이 ‘전경(F)’이 된다. 이런 까닭에 사건의 시간적 발생 순서에 따라 한국어와 영어에서 모두 ‘전경-배경’ 할당이 이루어진 예문 (9㉗)는 자연스러운 발화가 된다. 이에 반해 (9㉘)는 사건의 시간적 발생 순서와는 반대로 ‘전경-배경’ 할당이 이루어져 순차 원리에 위배된다⁹⁾.

이와 같이 시간적으로 연속된 두 사건은 일반적으로 발생 시간의 선후 관계에 따라 전경과 배경이 할당되며, 순차 원리에 따른 ‘전경-배경’의 할당은 ‘선행 사건-배경’과 ‘후행 사건-전경’으로 고정된다.

9) 이 경우에는 개념화자의 ‘초점 조정’에 의해 선행 사건을 현저한 사건으로 파악하여 ‘I shopped at the store(F) before I went home(G)./나는 집에 가기 전에(G) 쇼핑을 했다(F).’에서처럼 ‘전경-배경의 할당’이 역전된 것이다. 이는 순차적으로 발생한 사건에 대한 개념화자의 ‘관점(perspective)’과 관련된다. 즉 두 사건의 시간적 선후 관계를 중심으로 발화할 때에는 ‘순차 원리’에 따르지만, 두 사건 중 어느 것에 선택적 주의를 두느냐에 따라 개념화자의 관점이 달리 놓이면 (두 사건의 시간적 선후 관계에 상관없이) 개념화자의 ‘관점’에 따라 전경과 배경의 할당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 여기에서는 ‘순차 원리’에 의한 ‘전경-배경의 할당’을 살펴보는 것이므로, 이러한 ‘관점’에 따른 전경과 배경의 할당에 대해서는 논외로 할 것이다.

(10) 인과 원리(cause-result principle)



ㄱ. 한국어

- ㉠ 비가 와서(G) 길이 미끄러웠다(F).
- ㉡ ^길이 미끄러워서(G) 비가 왔다(F).

ㄴ. 영어

- ㉠ The roads were slippery(F) because it rained(G).
- ㉡ ^It rained(F) because the roads were slippery(G).

보통 먼저 일어난 사건은 뒤의 사건이 발생하는 데에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 경우 우리는 일반적으로 원인이 되는 사건을 기준으로 하여 결과로 나타난 사건을 이해한다. 이러한 보편적 인지 방식인 ‘인과 원리’에 의해 우리는 인과 관계로 연속된 두 사건에서 원인이 되는 사건을 배경(G)으로, 결과로 나타나는 사건을 전경(F)으로 할당하게 된다.

[표 3] ‘인과 원리’에 따른 전경-배경의 할당

전경-배경의 할당	배경(G)	전경(F)
순차 원리	선행 사건	후행 사건
인과 원리	원인 사건	결과 사건
	비(사건 A)	미끄러운 길(사건 B)
예문 ㉠	원인 사건	결과 사건
	비(사건 A)	미끄러운 길(사건 B)
예문 ㉡	결과 사건	원인 사건
	미끄러운 길(사건 B)	비(사건 A)

위의 예문 (10)에서 보듯이, 인과 관계로 연속된 두 사건에 대해 한국어

와 영어 모두에서 보편적으로 인과 원리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원인 사건(비)’이 ‘배경(G)’이 되고 ‘결과 사건(미끄러운 길)’이 ‘전경(F)’이 된다. 이런 까닭에 사건의 인과 관계에 따라 한국어와 영어에서 모두 ‘전경-배경’ 할당이 이루어진 예문 (10㉗)는 자연스러운 발화가 된다. 이에 반해 (10㉘)는 사건의 인과 관계와는 반대로 ‘전경-배경’ 할당이 이루어져 인과 원리에 위배되고, 이에 따라 비논리적인 발화가 된다.

이와 같이 인과 관계로 연속된 두 사건은 일반적으로 사건 간의 논리적 인과성에 따라 전경과 배경이 할당되며, 인과 원리에 따른 ‘전경-배경’의 할당은 ‘원인 사건-배경’과 ‘결과 사건-전경’으로 고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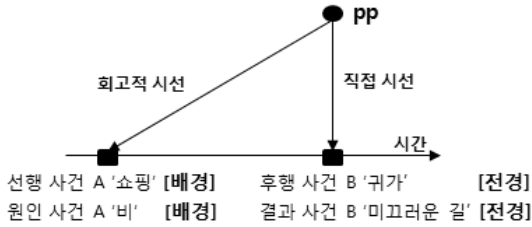
이상에서 우리는 시간적 선후 관계 및 논리적 인과 관계로 인접해 있는 두 사건을 해석할 때, 순차 원리 및 인과 원리에 따라 ‘전경-배경’의 할당이 고정됨을 구체적인 예를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해석 방식은 한국어와 영어가 동일함을 확인하였다.

2. 전경과 배경의 발화 순서 : 시선의 방향

이번엔 Talmy의 관점 양식(perspective mode)¹⁰⁾에 근거하여, 연속된 두 사건에 대하여 한국어와 영어의 ‘전경-배경’ 발화 순서를 시선 방향의 다양성 측면에서 비교 분석해 보자.

10) Talmy(2000: 68-79)는 공간상 위치하고 있는 대상을 인식하는 방식을 관점 양식의 측면에서 요약 관점(synoptic mode)과 연속 관점(sequential mode)으로 구분했고, 연속 관점의 개념을 ‘사건’에 적용하여 순차적 관점(cosquential perspectival mode)과 역차적 관점(antisequential perspectival mode)을 제시하였다. 또한 순차적 관점은 다시 시선의 방향(direction of viewing)에 따라 ‘직접 시선→전망적 방향(direct→prospective)’과 ‘회고적 방향←직접 시선(retrospective←direct)’으로 구분하고, 역차적 관점은 ‘회고적 방향←직접 시선(retrospective←direct)’과 ‘직접 시선←전망적 방향(direct←prospective)’으로 구분하였다.

(11) 시선 방향의 기본 모형: 회고적 시선과 직접 시선



(11)에서 보듯이 전경_{주절}은 개념화자가 연속된 사건 관계를 해석할 때 자신의 주의 초점이 놓이는 사건이다. 따라서 전경_{주절}에 개념화자의 관점(●)이 위치한다. 즉 개념화자는 전경이 되는 사건에 자신의 관점을 두고 연속된 사건들을 바라보게 되는데, 개념화자가 자신의 관점이 위치한 사건에 먼저 시선을 두면서 ‘직접적 시선(↓)’이 형성되고, 개념화자가 나머지 다른 사건으로 시선을 옮기면서 이 직접적 시선이 서서히 이동하여 ‘회고적 시선(↙)’이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선행 사건-후행 사건’ 및 ‘원인 사건-결과 사건’을 해석할 때, 개념화자는 우선 전경인 후행 사건 및 결과 사건에 관점을 설정하여 이들 사건을 먼저 바라본 후 선행 사건 및 원인 사건으로 시선을 이동(후퇴 방향(backward))하는 것이다.

그런데 연속된 두 사건에 대한 개념화자의 시선 방향이 언어 표현으로 발화될 때, 그 순서에서 한국어와 영어가 다음과 같이 차이를 보인다.

Sequential perspectival mode			
Cosequential		Antisequential	
↓ by Direction of viewing ↓			
Direct→ Prospective	Retrospective→ Direct	Retrospective← Direct	Direct← Prospective

(12) 발화 순서가 ‘배경-전경’인 경우

- ㄱ. ㉞ 나는 쇼핑한 후에(G) 집에 갔다(F).
- ㉞ After I shopped at the store(G), I went home(F).
- ㄴ. ㉞ 비가 와서(G) 길이 미끄러웠다(F).
- ㉞ Because it rained(G), the roads were slippery(F).

(13) 발화 순서가 ‘전경-배경’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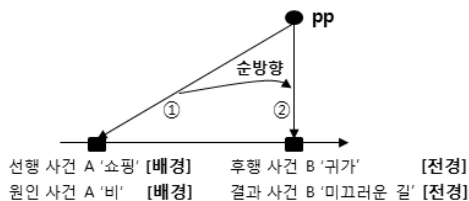
- ㄱ. ㉞ *나는 집에 갔고(F) 쇼핑 한 후에였다(G).
- ㉞ I went home(F) after I shopped at the store(G).
- ㄴ. ㉞ *길이 미끄러웠고(F) 비가 와서였다.
- ㉞ The roads were slippery(F) because it rained(G).

연속된 두 사건에 대해 (11)과 같이 개념화자의 시선 방향이 이루어질 경우, 한국어에서는 (12)처럼 ‘배경+전경’의 순서로만, 즉 ‘종속절+주절’의 순서로만 발화된다. 이에 반해 영어에서는 (12)와 (13)에서 보듯이 ‘전경+배경’과 ‘배경+전경’으로 전경과 배경의 발화 순서에 제약이 없다. 즉 영어에서는 주절과 종속절의 배열이 자유롭다.

이처럼 한국어와 영어의 복문에서 ‘전경-배경’의 발화 순서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즉 영어에서는 전경이든 배경이든 어느 것이든지 먼저 발화될 수 있는데, 한국어에서는 배경이 반드시 먼저 발화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를 찾기 위해 연속된 두 사건에 대한 개념화자의 ‘관점’ 및 두 사건을 해석하는 ‘시선의 방향’과 발화 순서의 관계를 통해 살펴보자.

우선 예문 (12)에서와 같이 ‘배경종속절’이 먼저 발화되는 경우이다.

〈그림 1〉 시선 이동 방향과 발화 순서의 일치



◎(한국어) 나는 쇼핑을 한 후에 집에 갔다.
(영어) After I shopped at the store, **I went home.**

◎(한국어) 비가 와서 길이 미끄러웠다.
(영어) Because it rained, **the roads were slippery.**

이 경우는 <그림 1>에서 보듯이, 한국어와 영어의 발화에 나타난 사건의 시간적·논리적 선후 순서와 두 사건에 대한 개념화자의 시선 이동 방향이 ‘사건 A→사건 B’로 일치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건의 발생은 선행 사건 ‘쇼핑’과 원인 사건 ‘비’가 먼저 이루어지고, 이어 후행 사건 ‘귀가’와 결과 사건 ‘미끄러운 길’이 일어났다. 그리고 개념화자는 이러한 사건의 발생 순서에 따라 복문을 구성하여 이들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이는 개념화자가 사건의 발생 순서에 따라 이들 사건을 해석한 결과이다. 그 해석 과정을 보면, 개념화자는 우선 시간적·개념적으로 인접해 있는 두 사건 중에서 ‘사건 B’에 주의 초점을 두어 이를 ‘전경(중심 사건)’으로 해석하고¹¹⁾, 이에 따라 자신의 관점(●)을 기본적으로 전경인 주절에 둔 상태에서 시간적으로 앞서 발생하거나 원인이 되는 사건을 먼저 바라봄에 따라 ‘회고적 시선(↙)’이 형성되고, 뒤에 발생하거나 결과가 되는 사건으로 개념화자가 시선을 옮기면서 이 회고적

11) 이는 순차 원리 및 인과 원리에 따른 ‘전경-배경’의 할당과도 일치한다.

시선이 서서히 이동하여 ‘직접적 시선(↓)’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처럼 복문의 발화 순서 ‘배경+전경’에는 사건의 발생 순서 ‘선행/원인 사건→후행/결과 사건’에 따른 개념화자의 해석 과정 ‘배경→전경’이 그대로 반영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순차적 관점에 따른 복문의 발화 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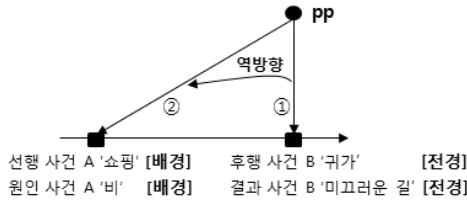
객관적 상황	연속된 사건의 발생	선행 사건	→	후행 사건
		원인 사건	→	결과 사건
해석방식	전경-배경의 할당 (순차 및 인과 원리)	배경(G)		전경(F)
	관점(PP)			●
	시선의 방향	회고적 시선(↙)	→	직접적 시선(↓)
	관점 양식	순방향(cosequential): 배경 → 전경		
복문	발화 순서	배경 + 전경		

이와 같이 시간 및 인과의 흐름과 관련된 사건은 그 시간적·인과적 순서에 따라 인지하고 발화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는 우리가 시간의 흐름을 대체로 ‘과거에서 미래로’, 논리의 흐름을 보통 ‘원인에 따른 결과’로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과 관련된다. 즉 선행 사건 및 원인 사건을 배경으로 하여 후행 사건 및 결과 사건을 전경화 함으로써 두 사건 관계를 해석하고, 그 순서에 따라 배경이 되는 사건(선행/원인)을 먼저 말하는 것이 인지적으로 자연스럽다. 그러므로 한국어와 영어 모두에서 배경이 되는 종속절을 먼저 말하고 전경인 주절을 이어 말하는, ‘배경종속절+전경주절’의 발화 순서가 자연스럽게 허용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¹²⁾.

다음으로 예문 (13)에서와 같이 ‘전경주절’이 먼저 발화되는 경우이다.

12) 이러한 현상은 ‘도상적 순서(iconic sequencing)’의 원리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이 원리에 대해서는 임지룡(2008: 332-336)에서 자세히 논의되고 있다.

〈그림 2〉 시선 이동 방향과 발화 순서의 불일치



- ◎(한국어) *나는 집에 갔고 쇼핑을 한 후에였다.
 (영어) **I went home**, after I shopped at the store.
 ◎(한국어) *길이 미끄러웠고 비가 와서였다.
 (영어) **The roads were slippery**, because it rained.

이 경우는 <그림 2>에서 보듯이, 한국어와 영어의 발화에 나타난 사건의 시간적·인과적 선후 순서(사건 A→사건 B)와 두 사건에 대한 개념화자의 시선 이동 방향(사건 A←사건 B)이 정반대로 어긋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건의 발생은 선행 사건 '쇼핑'과 원인 사건 '비'가 먼저 이루어지고, 이어 후행 사건 '귀가'와 결과 사건 '미끄러운 길'이 일어났다. 그러나 개념화자는 이러한 사건의 발생 순서에 따라 복문을 구성하지 않고, 이들 사건을 파악하는 자신의 해석 방식에 따라 복문을 구성하여 이들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이는 개념화자가 자신의 해석 방식에 따라 사건 관계를 재구성한 결과이다. 그 해석 과정을 보면, 개념화자는 우선 시간적·인과적으로 인접해 있는 두 사건 중에서 '사건 B'에 주의 초점을 두어 이를 '전경(중심 사건)'으로 해석한다. 이에 따라 자신의 관점(●)을 기본적으로 전경인 주절에 둔 상태에서, 자신의 관점이 놓인 후행 사건 및 결과 사건을 먼저 바람봄에 따라 '직접적 시선(↓)'이 형성되고 개념화자가 선행 사건 및 원인 사건으로 시선을 옮기면서 이 직접적 시선이 서서히 이동하여 '회고적 시선(↙)'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처럼 복문의 발화 순

서 ‘전경+배경’이 사건의 발생 순서 ‘선행/원인 사건→후행/결과 사건’과 정 반대로 구성된 것은 개념 화자의 해석 과정(‘배경←전경’)에 따라 재구성된 사건 관계가 그대로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역차적 관점에 따른 복문의 발화 순서

객관적 상황	연속된 사건의 발생	선행 사건	→	후행 사건
		원인 사건	→	결과 사건
해석방식	전경-배경의 할당 (순차 및 인과 원리)	배경(G)		전경(F)
	관점(PP)			●
	시선의 방향	회고적 시선(↙)	←	직접적 시선(↓)
	관점 양식	역방향(antisequential): 배경 ← 전경		
복문	발화 순서	전경 + 배경		

지금까지 한국어와 영어에 나타난 복문의 발화를 통해 각 언어의 개념 화자가 연속된 두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전경-배경의 할당’과 ‘시선의 방향’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표 6] 한국어와 영어의 복문에 반영된 개념화자의 해석 방식

객관적 상황	연속된 사건의 발생	선행 사건	→	후행 사건
		원인 사건	→	결과 사건
해석 방식	전경-배경 할당 (순차 및 인과 원리)	배경(G)		전경(F)
	관점(PP)			●
	시선 방향	회고적 시선(↙)	➡	직접적 시선(↓)
	개념화자의 재구성	회고적 시선(↙)	←	직접적 시선(↓)

↳ 영어

객관적 상황에 존재하는 연속된 사건이 시간적·인과적으로 인접해 있을 경우, 개념화자는 우선 보편적 인지 전략에 따라 후행 사건 및 결과 사건을 전경화 하여 이곳에 사건 관계를 해석하는 자신의 관점을 둔다. 이를 토대로 개념화자는 연속된 사건의 관계를 ‘객관적 상황 그대로’ 해석하거나, ‘개념화자가 재구성하여’ 해석한다.

연속된 사건의 관계를 객관적 상황 그대로 해석한다는 것은 개념화자가 연속된 사건을 해석할 때 사건의 발생 순서(배경→전경)에 따라 사건들을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에는 연속된 사건의 시간적·인과적 발생 순서와 개념화자의 시선 방향이 일치하게 된다. 이는 개념화자의 주관이 객관적 상황과 일치하여 일련의 사건을 있는 그대로 해석한 것이므로, 이러한 해석 방식은 언어 보편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연속된 사건을 복문으로 구성하여 ‘배경+전경’의 순서로 발화하는 것은 한국어와 영어에 모두 나타난다.

이에 반해, 연속된 사건의 관계를 개념화자가 재구성하여 해석한다는 것은 개념화자가 연속된 사건을 해석할 때 자신의 관점이 놓인 중심 사건부터(전경→배경) 먼저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에는 연속된 사건의 시간적·인과적 발생 순서와 개념화자의 시선 방향이 정반대가 된다. 이는 개념화자의 주관이 개입되어 객관적 상황과는 다르게 연속된 사건이 해석된 것이다. 이처럼 개념화자의 주관에 따라 상황을 재구성하는 해석 방식은 언어가 가지는 특수성에 의한 결과이다. 따라서 연속된 사건을 복문으로 구성하여 ‘전경+배경’의 순서로 발화하는 것은 한국어에는 나타나지 않고, 영어에만 나타난다.

요컨대 시간적·인과적으로 연속된 두 사건을 해석할 때, 한국어의 개념화자들은 객관적 상황에 존재하는 사건 그 자체를 중심으로 발생 순서에 따라 해석하는 경향이 있고, 영어의 개념화자들은 객관적 상황에 존재하는

사건을 자신의 주관에 따라 재구성하여 사건의 발생 순서와 다르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개념화자의 해석 방식이 언어 표현에 그대로 반영되어, 한국어의 복문은 ‘배경_{종속절}+전경_{주절}’로만 발화되고, 영어의 복문은 ‘전경_{주절}+배경_{종속절}’과 ‘배경_{종속절}+전경_{주절}’로 발화되는 것이다.

IV. 맺음말

본 논문은 개념화자의 해석 방식이 언어 표현의 구조와 의미에 반영된다는 인지언어학의 관점에서 한국어와 영어의 복문을 대상으로 하여 각 언어의 개념화자가 연속된 두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을 비교하고, 그 차이를 밝히는 데 주된 목적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제까지 논의한 내용을 간추려 본 논문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첫째, 연속된 두 사건을 인식할 때, 개념화자는 일반적으로 주의 초점을 달리 하여 어느 한 사건은 ‘배경’으로, 나머지 다른 사건은 ‘전경’으로 파악한다. 이때 전경과 배경을 파악하는 보편적 원리에 따라, ‘전경’이 되는 사건들은 대체로 ① 시간적으로 뒤에 일어난 사건(순차 원리), ② 결과가 되는 사건(인과 원리)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어 및 영어의 개념화자가 시간적·논리적으로 연속된 두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은 ‘선행/원인-배경’과 ‘후행/결과-전경’으로 동일하다.

둘째, 시간적·논리적으로 연속된 두 사건을 해석할 때, 개념화자가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의 방향’은 보편적으로 ‘회고적 시선(↙)’과 ‘직접적 시선(↓)’으로 이루어지는데, 개념화자가 배경 사건을 먼저 바라볼 경우에는 그 ‘시선의 이동 방향’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전경 사건을 먼저 바라볼 경우에는 시선의 이동 방향이 ‘역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때 개념

화자의 시선이 순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은 개념화자가 연속된 사건의 관계를 사건의 발생 순서에 따라 객관적 상황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고, 개념화자의 시선이 역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은 개념화자가 연속된 사건의 관계를 자신의 주관에 따라 재구성하여 해석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개념화자의 ‘시선 이동의 방향’ 측면에서는 한국어 및 영어의 개념화자가 연속된 두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에 차이가 나타났다. 한국어의 개념화자들은 객관적 상황에 존재하는 사건 그 자체를 중심으로 발생 순서에 따라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영어의 개념화자들은 객관적 상황에 존재하는 사건을 자신의 주관에 따라 재구성하여 사건의 발생 순서와 다르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한국어 복문의 어순은 ‘배경_{종속절}+전경_{주절}’로 고정된다. 이에 반해 영어 복문의 어순은 ‘전경_{주절}+배경_{종속절}’과 ‘배경_{종속절}+전경_{주절}’로 연속된 사건의 발화 순서에 제약이 없다. 이는 한국어와 영어의 개념화자의 해석 방식, 구체적으로 시간적·인과적으로 연속된 두 사건에 대한 개념화자의 시선 이동 방향의 차이가 언어 표현에 그대로 반영된 결과이다.

【참고문헌】

- 임지룡, 『의미의 인지언어학적 탐색』, 한국문화사, 2008.
- Croft, William and D. Alan Cruse, *Cognitive linguistic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 Langacker,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 Volume I*.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7.
- Langacker, *Concept, Image and Symbol: The Cognitive Basis of Grammar*. Mouton de Gruyter, 1990.
- Talmy, Leonard, *Toward a Cognitive Semantics, Volume I: Concept Structuring Systems*. Cambridge, MA: MIT Press, 2000.

Abstract

Construal and Perspectival Mode in Korean and English

- With Focus on Two Events in Sequence
and with Causality -

Jeong, Su-Jin · Lee, Ju-Ick

In light of cognitive linguistics, a variety of linguistic expressions reflect how a language user construes a given context such as event and situation. In this respect construals of the same situation can vary depending on individuals and languages. From the perspective this paper explores construal and perspectival modes in terms of directions of viewing sequential events in Korean and English complex sentences. The findings are as in the following.

First,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Korean and English in Figure-Ground alignment, complying with Talmy's universal principles of events in an interevent relation. Moreover, when it comes to events in a relation of temporal sequence and causality, the earlier-occurring event and the causing event act as Ground, and the later-occurring event and the resulting event act as Figure in both Korean and English.

Second, in terms of positional changes of Figure-Ground within a complex sentence, Korean and English have differences with each other. This study reveals that the directions of one's viewing two events in sequence and with causality result in those distinctions between languages.

Korean speakers seem to have the tendency to view the events in question in accordance with time order of events occurring. On the other hand, English speakers appear to have some flexibility in observing the events depending on their own perspectives in that their direction of viewing correspond to the direction of the referent events occurring and conversely, the opposite correlation can exist between the directions.

That is, in terms of clause order within a complex sentence, only the sentential structure 'Ground in a subordinate clause + Figure in a main clause' appears in Korean while English permits both the sentential structures such as 'Ground in a subordinate clause + Figure in a main clause' and 'Figure in a main clause + Ground in a subordinate clause. The rationale behind this is that when it comes to two events in sequence and with causality, there exist clear-cut differences of direction of viewing them between Korean and English speakers, which are directly projected onto their language expressions.

Key Word : events in sequence and with causality, construal and perspectival mode, direction of viewing, direct viewing, retrospective viewing.

정수진

소속 : 대구한의대학교 한국어문학과 조교수

주소 : (712-715) 경북 경산시 한의대로 1

전화번호 : 053-819-1330

전자우편 : yesom@dhu.ac.kr

이주익

소속 :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외래교수

주소 : (702-701) 대구 북구 산격동 1370번지

전화번호 : 010-3826-0792

전자우편 : 95sophia@hanmail.net

이 논문은 2013년 11월 15일 투고되어
2013년 12월 6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3년 12월 10일 게재 확정됨.